

## はじめに

この報告書は、2002年3月13日から16日にかけて、佐倉市の国立歴史民俗博物館で開催した第5回歴博国際シンポジウム「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の成果報告であります。

6世紀以前、朝鮮半島東南部の加耶あるいは加羅と呼ばれた地域が、当時倭と呼ばれた日本に最も近い外国として、日本列島の文明化や初期の国家形成に果たした役割にはきわめて大きなものがあります。最近の韓国におけるこの地域の考古学的な調査・研究の進展にともない、6世紀以前における加耶やその周辺地域と倭の交流の実態がきわめて具体的に明らかにされてきました。また加耶をはじめとする朝鮮半島諸地域と倭との交流に関する韓国の考古学や古代史の研究者と日本の研究者との研究交流が盛んになってきたことは、日韓の学術交流発展の一環としてきわめて喜ばしいことです。ただこうした加耶など朝鮮半島諸地域と古代日本の交流についてのめざましい研究成果は、必ずしも古代国家形成期の日本列島に関する歴史研究や歴史叙述に十分に生かされているとはいえないことは、残念ながら認めざるをえないと思います。

このため、わたくしたちはこのテーマに関連する研究を意欲的に進めておられる韓国、さらに中国の研究者をお招きし、日本の考古学、古代史の研究者とともに「倭と加耶の交流とその歴史的意味」に関する研究の現状を総括し、残された問題の所在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この国際シンポジウムを企画いたしました。このシンポジウムでは、第1日目は「加耶の鉄が倭国の歴史に果たした役割」について、2日目は「騎馬戦用の武器と馬具」すなわち騎馬文化の受容の問題を、3日目は「その他の考古学資料からみた加耶と倭の関係」を討論しました。そして最終日の4日目には、それまでの報告・討論を踏まえて「加耶と倭の交流の歴史的意義」をテーマに総括的な議論をいたしました。

本報告書は、このシンポジウムの単なる記録ではなく、参加者がこのシンポジウムに参加して得られたところをも加味して、それぞれ分担されたテーマについて改めて執筆いただいた論考を収録したものであります。このシンポジウムでは、わたくしたち主催者側の力不足もあって、必ずしも所期の目的を果たすことができたかどうかはわかりませんが、この報告書が加耶をはじめとする朝鮮半島諸地域と倭の交流の実態とその歴史的意味を考える上にきわめて重要な手がかりを提供するものであることは疑いないと思います。本書が今後の倭・韓交流史研究の前進に役立つことを願うものであります。

最後になりましたが、この国際シンポジウムに参加するため、わざわざ佐倉の地までお越しいただいた韓国や中国の研究者の方々をはじめとする報告者の方々、また4日間の討論に熱心にお付き合いいただいた多くの研究者や市民の方々、さらにこのシンポジウムの裏方を務めていただいた多くの方々に厚くお礼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シンポジウム総括責任者

国立歴史民俗博物館考古研究部教授

白石 太一郎

##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2002년 3월 13일부터 16일에 걸쳐, 사쿠라시의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된 제 5회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국제심포지엄 「고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왜와 가야의 교류」의 성과 보고입니다.

6세기 이전, 한(조선)반도 동남부의 가야 혹은 가라라고 불리던 지역이, 당시 왜라고 불리던 일본에 가장 가까운 외국으로서, 일본열도 문명화와 초기 국가 형성에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의 이 지역에 관한 고고학적인 조사·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6세기 이전에 있어서의 가야 및 그 주변 지역과 왜와의 교류 실태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야를 비롯한 한(조선)반도 여러 지역과 왜의 교류에 관한 한국의 고고학, 고대사 연구자와 일본 연구자와의 연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지게 된 것은, 일·한 학술교류 발전의 일환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이러한 가야 등 한(조선)반도 여러 지역과 고대 일본과의 교류에 대한 광목할 만한 연구성과들이, 꼭 고대국가 형성기의 일본열도에 관한 역사 연구나 역사 서술에 충분히 살려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유감이지만 시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테마와 관련된 연구를 의욕적으로 해오신 한국, 그리고 중국의 연구자 분들을 초청해, 일본 고고학·고대사 연구자들과 함께 ‘왜와 가야의 교류 및 그 역사적 의미’에 관한 현재 연구 상황을 총괄해, 남아 있는 문제들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해, 이 국제 심포지엄을 기획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첫날은 ‘가야의 철이 왜국 역사에서 한 역할’에 대하여, 이틀째는 ‘기마전용 무기와 마구’ 즉 기마문화 수용의 문제를, 사흘째는 ‘기타 고고학 자료에서 본 가야와 왜의 관계’를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흘째는 그간의 보고·토론을 바탕으로 ‘가야와 왜 교류의 역사적 의의’라는 테마로, 총괄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 심포지엄을 단순히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참가자 분들이 이 심포지엄에 참가해 새로 얻은 내용을 가미해서, 각자 담당한 테마에 대하여 다시 집필해 주신 논고를 수록한 것입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주최자측의 힘이 부족한 탓도 있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확인하기 힘들지만, 이 보고서가 가야를 비롯한 한(조선)반도 여러 지역과 왜사이의 교류 실태와 그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이 책이 앞으로의 왜·한 교류사 연구의 전진에 도움이 될 것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하기 위해, 일부터 이곳 사쿠라까지 와주신 한국, 중국의 연구자 분들을 비롯한 보고자 여러분, 또한 나흘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에 열심히 참가해 주신 많은 연구자 및 시민 여러분, 아울러 이 심포지엄을 뒤에서 진행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심포지엄 총괄책임자

國立歷史民俗博物館考古研究部教授

白石 太一郎